

# 당신의 냉장고를 열어라

### '냉장고 환상' 전, 9월 26일까지 ACC 복합문화관 효율성 이면의 무분별한 소비·음식문화 등 조명

연일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시원한 것'에 대한 갈증, 집착 또한 강렬해진다. 시원한 커피 한 잔, 냉 공극수, 달달한 수박화채와 같은 음식이 당긴다. 이러한 음식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바로 '냉장고'다.

여름이라는 계절과 가장 밀접한 사물을 꼽는다면 아마도 냉장고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처음 냉장고를 접했던 어른들은 '경물(敬物)'로 받아 들였다고 한다. 집에서 모시는 귀한 제품이었던 셈이다. 냉장고는 등장 이래 제품 자체 거부감보다는 환상과 기대를 심어줬다. 지금은 이색적인 디자인과 컬러풀한 색상 등 다양한 형태의 냉장고가 출시되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백색에 네모진 형태의 냉장고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냉장고의 변신 또한 변화무쌍하다.

냉장고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은 오는 9월 26일까지 복합문화관 3·4관에서 '냉장고 환상'을 주제로 기획전전을 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지난 3년여 동안 연구, 수집한 자료를 다채로운 시각예술화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냉장고 환상'은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편리와 효율성 탓에 잃어버린 중요한 무엇이 있음을 전제한다. 인구 증가,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위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냉장고에 의존한 식품 보관과 유통, 소비가 지속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번 전시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차가움을 다루는 인류 역사와 냉장의 진화, 음식과 생활문화 변천사 등을 조망한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부분은 '차가움의 연대기'다. 얼음과 냉장고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이야기를 연표에 따라 구성했다. 얼음을 이용한 식재료 보관부터 냉각 기술의 발달 등이 일목요연하게 배치돼 있다.

'차가움의 연대기' 앞 전시장에서는 초창기 다양한 형태의 냉장고를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사용하던 나무형태의 냉장고는 백색 바탕의 냉장고에 익숙한 이들에게 낯설게 다가온다. 나무 질감이 주는 거칠고 딱딱한 느낌은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얼음과 사뭇 대조를 이룬다.

바로 옆에는 얼음을 모티브로 중국 중앙 작가가 지난 2018년 11월 진행한 프로젝트가 소개돼 있다. 중앙 작가는 고대 중국에서 겨울 동안 얼음 덩

어리를 땅에 묻었다가 여름에 아이스크림으로 먹었다는 전설에 흥미를 느꼈다. 작가는 1㎏ 크기의 얼음 덩어리를 오스트리아 조각 공원 독에 묻은 후 2019년 5월 19일 조각 공원 봄 축제를 맞아 얼음을 다시 꺼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독일 빌라 메르켈 아트센터에서 재연됐으며 작가는 프로젝트 연계로 동화책을 만들었다.

다음 전시장 주제는 '당신의 냉장고를 열어라'. 냉장고 이면에 드러워진 다양한 문제와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종잡짐, 청년 세대, 무연고자, 다문화 가정의 냉장고 이야기 등을 소재로 한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칼럼을 만난다. 냉장고를 바라보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관점과 시각도 공유된다.

다음 전시장은 '거대한 냉장고 작은 세계'로, 이곳에선 냉장고와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쟁점을 다룬다. 냉동, 냉장 기술이 가져온 식품의 대량 생산과 유통, 무분별한 식재료 소비에 대한 폐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냉장고 없는 부엌'을 생각할 수 있을까? 대체로 사람들은 식재료 고유의 특성과 무관하게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전할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냉장고에 의존할수록 식재료 보존 정보나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상적인 지식을 망각하게 된다.

마지막 전시장에서는 식재료 특성에 맞는 연구와 전통 지식을 활용한 식품 보관법, 식품 보관과 저장에 대한 실천 사례 등을 제시한다. 오랜 저장법인 발효와 연관된 자료, 작품 등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한 냉장고.  
▼일제시대에 나온 냉장고.

## 여름방학 온라인 해양문화체험 떠나요

### 국립해양문화재단, '재활용품을 활용' '해양문화재' 만들기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국립해양문화재단연구소는 5일부터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토대로 펼쳐진다.

먼저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는 유아들이 해양생물을 만들어 보는 '바다친구 탐험배'와 초등

학생들이 나만의 상상 속 바다 세계를 만들어 보는 '바닷속 보물 탐험대'가 포함돼 있다. 9월 30일까지 누리집에 작품 사진을 제출하면 총 2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해양문화재 만들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보물선인 신안선을 나무 모형으로 조립하는 '신안선 만들기', 고려청자 매병의 버드나무·모란 문양을 나만의 색으로 꾸미는 '매병(梅瓶) 만들기'로 진행된다.

1회차 교구 신청은 5일부터 13일까지(각 10



'신안선 만들기'

명씩), 2회차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각 100명씩) 선착순으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교육비는 무료. 문의 061-270-2052/204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명상-빛의 사랑'

## '명상'

### '히말라야 작가' 강찬모 전 갤러리 더 코르소 앤 김넷과

광주 구도심의 오래된 병원을 리모델링한 '김넷과'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문화공원'이다. 지하와 1·2층 공간을 활용하는 갤러리에서는 탄탄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의 전시회가 꾸준히 열리고, 젊은 작가들을 응원하는 기획전도 수시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2층에서는 작은 음악회, 강연회, 토론회 등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영무예다음이 운영하는 '김넷과'는 문화·메세나의 의미있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영무파라드 호텔을 오픈한 영무 예다움은 '아트호텔'을 표방하며 공간에 '예술'을 입혔다. 호텔 객실과 복도 등에는 마크 샤갈, 김기창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걸었고, 손봉채 등 지역 작가들과 청년작가들의 작품 30여점을 설치했다. 지난 7월에는 '침이 있는 아트여행'인 '호텔아트 페어'도 개최했다.

포항 더 코르소 갤러리와 협력해 호텔 3층에 오픈한 '갤러리 더 코르소 앤 김넷과'는 전국의 유명작가를 초대해 문화향기를 전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 작가들을 알리는 전진 기지 역할도 하려 한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8월 기획전에는 '히말라야 작가'로 불리는 강찬모 작가를 초청했다. 히말라야의 산과 하늘을 대형 화폭에 옮긴 그의 작품들은 눈이 시릴 듯한 짙은 색이 인상적이며, 한 템포 '침'을 권유하는 듯한 여백의 미는 감상자를 사유의 세계로 인도한다. 특히 주 대상인 산의 형상을 때로는 간략하게, 때로는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화면에 다채로움을 부여하고 화면과 거친 질감이 인상적인 토분과 먹, 천연 안료 등 재료 실험이 만들어진 작품은 눈길을 끈다.

한동안 서양화에 몰두했던 작가는 히말라야 산맥을 여행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전통을 연구하고 재해석한 재료 사용과 화면 구성 등으로 한국화의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명상(Meditation)'이라는 타이틀 아래 '빛의 사랑', '별이 가득하니 사람이 끝이 없어라' 등의 부제가 붙어 있는 작품은 쏟아지는 별빛과 아스라한 설산, 검푸른 하늘이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강 작가는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학과 대구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일본 미술학교와 츠쿠바대학에서 수학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국내외에서 전시를 열어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임기 시작

김선출(사진) 신임 전남도문화재단 제3대표이사 4일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단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도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 1일까지다.

무안 출신인 김 대표는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목포대 대학원(고고학)을 수료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 광주전남문화재단 대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5·18



민주공직자로 '5월의 문화와 예술' 등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김 대표이사는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민간경영체제가 구축된 만큼 책임감이 무겁지만 앞으로 여향 전남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상상인' 신춘문예 공모... 12월 27일까지 접수

도서출판 상상인과 시전문지 '상상인'에서 2022년 상상인 신춘문예를 공모한다.

분야는 시 부문(자유)으로 창작시 5편이상 10편 이내를 이메일(ssaangin@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12월 27일까지이며 상금은 200만원. 응모자격은 신인으로 타 문예지 수상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작품은 인터넷을 포함한 어떠한 매체에도 발표

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시상식전까지 발표를 금한다. 원고의 앞면 별지에 인적사항(이름·연락처·주소·나이 등)을 기재해야 하며 기 발표 작가거나 표절로 밝혀질 경우 당선 취소 및 상금 추수한다. 발표는 '상상인' 2022년 1월호(통권3호)에 게재되며 시상식은 2022년 3월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010-7371-187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